

광주시, 영산강 2급수 맑은 물 수질개선 사업 속도

덕흥보~월산보 10km 구간 취수 후 수질 개선 '영산강 물 재이용' 환경부, 광주시 건의한 '물순환촉진구역' 지정·국비 지원 적극 검토

광주시가 심각한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산강 맑은 물 활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84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10km 구간의 하천복류수를 취수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영산강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영산강 물 재이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남부 지방에 닥친 1973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광주 시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생존의 문제"라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 부처인 환경부도 '영산강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광주시의 영산강 물 순환 체계 개선 사업과 관련해 "광주는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영산강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며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환경부는 현재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순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에서 건의한 물순환촉진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산강 자연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역시 민선 8기 들어 2030년까지 2등급 수준의 맑은 물이 흐르는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기본 구상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10만t의 하상여과수를 취수해 가뭄 때는 식수로, 평상시엔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미 8억여원을 들여 '영산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산강 상류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대체 수자원 확보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 10곳 지정

생산·가공 시설장비 지원 등 혜택

전남도가 최근 여수 화산마을, 곡성 전기마을, 화순 선화마을 등 10곳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했다. 영암 주암·남송정·천혜·유천마을, 함평 옥동마을, 영광 사산마을, 장성 상도마을 등도 포함됐다. 이들 마을은 친환경인증 농가 10호 이상, 인증면적 10ha 이상으로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이 30% 이상인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곳이다.

여수 화산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16농가, 11.2ha(유기농 100%)의 친환경농업단지, 섬마을 특유의 생태환경이 자연적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으며,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장소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곡성 전기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12농가, 10.5ha(유기농 86%)의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마을로 돌담과 흙벽 등 생태환경이 잘 보전됐다. 화순 선화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38농가, 51.1ha(유기농 92%)로 30년째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오랜 친환경 농업으로 메뚜기와 반딧불이, 미꾸라지가 많다. 영암 주암마을은 전체 22농가, 25ha(유기농 100%)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기관단체에서 도갑사까지 마을 뒤편에 돌레길이 조성돼 현장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 남송정마을은 전체 18농가, 10.5ha(유기농 100%)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2026년까지 교육관, 체험시설, 암벽등반장 등을 갖춘

월출산탐방원이 들어설 계획으로, 주민의 농촌 체험활동 추진 의지가 강하다.

영암 천혜마을은 전체 23농가, 36ha(유기농 100%)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친환경적화단지로 돌담을 활용한 농경문화가 발달했다. 마을 주민이 자연 친화적 농사 및 환경보전 등 공동체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영암 유천마을은 17농가, 26.4ha(유기농 79%)가 친환경인증 받은 자연 친화마을이다. 유천마을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비틀샘꾸러미사업'을 펼치는 등 주민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

함평 옥동마을은 35농가, 33ha(유기농 94%)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마을 안 돌담길과 오래된 한옥 정원이 잘 보전된 환경친화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이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다. 영광 사산마을은 15농가, 11.5ha(유기농 100%)가 친환경인증 받았다. 주민 47명이 '불갑유동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 농산물 가공·판매, 체험·관광으로 주민 일자리창출, 자녀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장성 상도마을은 16농가, 14.7ha(유기농 100%)로 10년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풍부한 물과 울창한 산림으로 자연 생태환경이 뛰어나다.

이들 마을엔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마을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



21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라이즈(RISE) 체계 설명회'에 참석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5개 자치구,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역 역량 총결집”... ‘광주형 라이즈’ 사업 성공 돕는다

산업·문화·복지 등 교육과 연계 12월 '라이즈 기본계획' 확정

광주시가 내년 시행을 앞둔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무등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광주시 라이즈(RISE) 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5개 자치구,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경제진흥원생생일자리재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라이즈(RISE-Regional In-

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 산업·문화·복지·정주 등을 연계하는 '광주형 라이즈(RISE)'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RISE)는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사업 중 하나로,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학성화사업)을 통합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외부전문가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2월께 (가칭)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라이즈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

침이다. 광주시는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그라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식학원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라이즈의 성공은 지역 역량을 얼마나 결집하고 연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학은 물론 기업과 자치구,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공동체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국회에 재해보험 제도 개선·지원 요청

긴 고수온 특보에 1150여가 피해

전남도가 고수온 피해현장을 방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여수 가두리 양식어가를 찾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주요 품종 복구비 단가 상향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남 해역에서는 올 여름 고수온 특보가 71일간 발령됐고 10개 시·군, 1150여가에서 어류·전복

5100만 마리, 새조막 6800 t의 폐사 피해가 접수됐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국회의원 등 1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김 지사는 "현실성 있는 복구지원을 위해 주요 품종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0%로 상향하고, 재해보험 주계약 담보에 고수온 포함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장기간 지속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폐사가 계속되는 여수, 해남, 완도, 3개 시군에서 피해 신고 기간을 6-8일간 연장해 접수하는 한편, 피해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를 추진, 여수 59여가에 재난지원금 25억 원(어가당 지원 한도 5000만원), 용자 19억 원을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기 제조업 용자 지원 확대 전남도, 8년간 최대 20억

전남지역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 원으로 지원한다. 8년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종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전남도는 또 경매나 공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에 한정됐던 시설자금의 용도를 공장 매입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했다. 자금 신청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토록 하는 방식도 변경,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추천까지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